

창세기강해 15

사탄의 패배 (창 3:11~15)

하용조 목사 / 1998년 7월 5일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쁨, 사랑, 신뢰가 있는 복된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지은 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영혼에 죽음과 저주와 죄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고통과 죽음의 행진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구 도처에는 전쟁과 파괴, 폭력과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죄가 인간 사회에 들어오는 순간, 바이러스에 오염되어 온 몸에 종양과 암이 생기는 것처럼 고통과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수치심으로 도망가게 하는 ‘죄’

창세기 2~3장을 보면 죄가 들어왔을 때의 현상을 몇 가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죄가 인간 속에 들어왔을 때 생긴 첫 번째 현상은 ‘부끄러움’이라고 3장 7절에서 말합니다. 수치심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 인간에게는 수치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인간은 수치심으로 당황한 나머지 급히 무화과 나무앞으로 그들의 수치를 감추었습니다. 그러나 죄는 가려지지도, 숨겨지지도 않았습니다.

죄는 인간의 노력이나 방법으로 감추면 감출수록 더욱 커지기만 합니다. 그래서 죄인은 더욱 숨고 피하고 도망갑니다.

수치감이 그대로 남겨져 있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들의 몸을 에덴동산에 있는 나무 뒤에 숨겼습니다.

죄인은 도망자입니다.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죄인의 운명입니다. 죄인은 불러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도망합니다. 도망자의 삶은 공포와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10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그 후로부터 이전에 없었던 두려움과 공포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질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있든지 없든지 인간은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초조하게 쫓기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다보면 외로움과 고독이 찾아옵니다. 누군가 옆에 있어도 외롭고, 없어도 외롭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극에 달하면 두려움을 주는 상대를 죽이고 싶어집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없어진다면 자살합니다. 병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돈이 없다는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은 급기야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이 도망하다가 수세에 몰리게 되면 도리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대들고 같이 싸우자고 덤벼듭니다. 본인이 잘못했음에도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책임이 전가되면 투쟁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죄의 특징인 변명과 책임전가를 볼 수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아담과 하와를 찾기 시작하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고 도망가도, 수치스러워 숨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내고야 맙니다. 하늘 끝으로 가도, 바다 끝까지 가도, 땅 끝까지 가도 찾아내고야 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실수와 허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찾아내 죄에서 건져내십니다.

11절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발견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 하여 숨었나이다’라고 변명합니다.

죄는 변명을 낳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변명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변명의 단계를 넘어서면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책임을 회피하거나 전가합니다.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아담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벗고 지냈는데 갑자기 왜 벗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느냐’고 물으십니다. 죄가 없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었지만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은 죄에 대해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실과를 먹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통해 하나님은 벗었음을 가르쳐 준 것은 사탄임을 지적하십니다.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적해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수치를 알게 된 것은 사탄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두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교회 나오기를 거부하는 까닭은 뒤에서 어둠의 세력이 조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직시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불평하고, 화내고, 미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사탄의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죽음으로 몰아가기 위한 음모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은혜가운데 살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설교와 성경공부를 거부했고, 기도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시간을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도망자의 모습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적에 대한 아담의 반응을 보십시오. 12절을 보십시오.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질문했을 때 아담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죄를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죄를 지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부인하는데 아담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죄의 특성, ‘변명’과 ‘책임전가’

현대인들은 죄를 짓고서도 당당합니다. 죄를 인정하면서도 뻔뻔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시인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싸움의 원인도 사과하지 않는데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본인이 잘못했음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시인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변명하거나,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은 죄의 본질, 사탄의 성격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담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태도는 ‘나는 잘못이 없다’는 태도입니다. 선악과를 먹기는 했지만 ‘그 여자’가 주어서 먹었다고 변명합니다. 아내를 ‘그 여자’라고 말하면 이미 그들의 관계는 깨어진 것입니다.

아담을 그 여자의 유혹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못난 남자는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남자입니다. 온누리교회 남성들은 부인이 비록 잘못했다 하더라도 책임을 뒤집어씌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일 부인을 보호하지 않고 책임을 뒤집어씌운다면 아담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12절에서 아담의 실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는가?’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17절을 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를 보여주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실 때는 하와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은 아담에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와는 명령 후에야 만들어졌습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하와보다 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담은 ‘나는 모른다’라고 발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위기 앞에서도 모두들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내가 모르는 동안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음모를 꾸몄고 우리의 지시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사실은 하와보다 아담이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담은 자신에게 책임이 없고 하와가 잘못했다고 변명합니다. 이것이 아담의 첫 번째 실수입니다.

죄는 부부를 분리시켜

두 번째로 아담은 하와가 자신과 한 몸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부부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위기에 부딪히자 ‘너는 너, 나는 나’라고 분리시킵니다. 이것은 부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맞고 있는 위

기는 ‘한 몸’이라는 생각이 없는 데 있습니다. 부부는 얼마든지 이혼하고 헤어질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부는 매일 싸우면서도 절대 이혼은 하지 않지만, 어떤 부부는 조금만 성격이 달라도 헤어지자고 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 속에는 헤어지는 것이 정상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헤어질 수 없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아담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아담은 모든 책임을 여자에게 돌려 버렸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책임을 여자에게 돌렸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할 때 그 앞에 붙인 수식어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같이 살라고 한 그 여자’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수는 인간이 하고 책임은 하나님에게 떠맡기는 행위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죄를 지은 부분을 말하지 않거나 축소합니다. 그리고는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왜 죄를 만들어 놓았느냐’고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에게 ‘왜 죄를 지을 수 있게 만들었느냐’고 반항하는 것은 ‘사람을 개나 돼지처럼 만들지 않았느냐’라고 따지는 것과 같습니다. 개나 돼지는 죄에 대한 갈등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선택할 수 있고, 자유를 누릴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는 인격적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짐승과 다르게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죄를 선택하고 나서 그 책임을 하나님께 뒤집어씌우는 것입니다. 죄의 특징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고, 언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부터는 그들의 사고방식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만 찾아오지 않았습니니다. 하와에게도 찾아왔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은 여자에게 찾아와서 죄의 동기를 질문하십니다.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여자의 대답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뱀 때문에’라는 변명이었습니다.

하와의 경우는 아담과 동일합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동일하다는 뜻이 아니라 죄가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실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남편이나 아내에게 잘못했을 때 용서를 구하십니까? 부모들도 실수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용서를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내도 남편에게 자기 잘못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니다. 잘못을 했지만 ‘저 사람 때문이요’라고 말했습니다. 죄를 지은 이유가 다른 사람 때문이고 사회구조 때문이라고 말하고 핑계를 댑니다. 이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에게 책임을 돌리고, 변명하지 말고,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을 고치고 인정하라’고 하는 것은 죄의 대가까지 치루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은 죄의 대가를 치를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회복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빛을 갇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은 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죄는 내가 갚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게함으로 우리가 지은 죄를 갚아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없는 것과 같이 기억도 하지 않고 용서해 주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미안한 마음과 감당할 수 없이 죄송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십시오. 제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12절과 13절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왜'라고 질문을 하셨지만 뱀에게는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는 회개와 회복의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물어보시지만 사탄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심판을 하십니다. 저주하십니다.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저주를 받은 뱀

하나님은 뱀에게 두 가지 저주를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짐승은 발로 다니거나 날아다니지만 뱀은 배로 다닐 것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고 저주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사탄은 여기에서 완전히 패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창조주와 동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다는 이원론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한분이십니다. 마귀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마귀는 자신이 하나님과 비슷하다고 속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여러분, 사탄을 겁내지 마십시오. 사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사탄은 세 번 심판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에덴동산에서고, 두 번째는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이며,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원히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뱀은 이미 저주를 받았습니

다. 뱀은 다른 동물들 보다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 다니게 됩니다. 모든 동물은 발로 다니고 날개로 날아다닙니다. 정정당당합니다. 그런데 배로 기어 다니는 것은 웬지 떳떳하지 못하고 비굴한 것 같습니다. 뱀만 보면 모두 싫어합니다. 뱀은 소리 없이 옵니다. 뱀같이 살지 마십시오. 떳떳하게 사십시오.

뱀은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흙으로 인간의 육체를 만들었습니다. 흙에는 인간의 육체의 요소가 있습니다. 마귀는 인간의 육체를 만집니다. 가끔 질병도 주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락을 통해 괴롭히는 것은 인간의 육체를 사탄이 다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마귀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혼을 다루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룰 수 없습니다. 그는 우리를 괴롭힐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킬 수는 없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지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성경 최초의 예언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되었고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은 완전히 저주했지만 사람은 완전히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셨습니다. 인간의 타락하는 순간이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사이에는 간격이 없습니다. 마치 탕자가 집을 나가는 순간부터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죄는 이미 2천년 전에 용서되었습니다. 갈보리언덕에서 여러분의 죄와 허물과 실수와 죽음과 모든 질병은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나고, 그 메시아가 사탄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멸망시킬 것이라는 예언을 15절에서 하십니다. 여자와 뱀은 원수가 되고 그들의 후손도 원수가 되며 뱀이 인간을 괴롭힐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서 뱀의 정수리를 찌를 것이다! 사탄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패배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메시지를 통해 발견하는 것은 죄가 들어오면 책임을 전가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순간부터 행복이 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큰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살아왔습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는 것이

마치 나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대결하고

자존심싸움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친구와의 관계도, 부모님과의 관계도,

자녀와의 관계도, 그래서 깨어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사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용기와 회개의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출처 : 온누리신문**